

암! 조기발견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

암 조기 발견 사례

- 폐 암...광주에 거주하는 주○○씨(남/43)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·전남지부에서 폐암 유소견 판정 후 조선대병원에서 수술 후 치료 중에 있다.
- 간 암...부산에 거주하는 공○○씨(남/60)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에서 간암 유소견 판정 후 부산대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다.
- 위 암...청주에 거주하는 김○○씨(남/69)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에서 위암 유소견 판정 후 충남대병원에서 위암 확진 받고 수술 예정 중에 있다.
- 유방암...제주에 거주하는 박○○씨(여/55)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에서 유방암 유소견 판정 후 제주한국병원에서 수술 후 치료 중에 있다.
- 자궁암...서울에 거주하는 정○○씨(여/46)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지부에서 자궁암 유소견 판정 후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 후 치료 중에 있다.

한국건강관리협회
5대 암 검진 현황
(2002년 12월 현재)

팔호 안은 암 의심자(단위: 명)

지부	계	폐암 확진자	간암 확진자	위암 확진자	유방암 확진자	자궁암 확진자	비 고
중 앙	6(16)	0(1)	1(1)	0(5)	1(5)	4(4)	
서 울	2(14)	0(0)	0(0)	0(4)	0(0)	2(10)	* 총 검사인원 994,069명
부 산	21(67)	0(0)	2(3)	2(19)	0(5)	17(40)	
대 구	2(35)	0(2)	1(3)	1(14)	0(2)	0(14)	
인 천	2(11)	0(0)	1(1)	1(1)	0(6)	0(3)	* 12월 검사인원 : 107,928명
울 산	0(17)	0(2)	0(0)	0(3)	0(6)	0(6)	
경 기	1(9)	0(0)	0(1)	0(3)	1(4)	0(1)	
강 원	0(22)	0(3)	0(1)	0(5)	0(11)	0(2)	* 확진자 : 0.05% * 의심자 : 0.31% * 자궁경부암 확진 은 ClassⅣ 이상
충 북	4(16)	0(1)	0(0)	4(13)	0(0)	0(2)	
충 남	1(8)	0(0)	0(3)	1(5)	0(0)	0(0)	
전 북	1(8)	0(0)	0(3)	1(5)	0(0)	0(0)	
전 남	7(32)	1(4)	0(0)	1(8)	0(6)	5(14)	
경 북	5(42)	0(2)	1(7)	1(12)	2(18)	1(3)	
경 남	1(9)	0(0)	0(2)	0(6)	0(0)	1(1)	
제 주	2(23)	0(1)	0(0)	0(7)	2(13)	0(2)	
총 계	56(337)	1(17)	6(24)	11(109)	6(77)	32(110)	
전월계	472(3,134)	26(339)	72(564)	77(946)	71(633)	226(652)	
누 계	528(3,471)	27(356)	78(588)	88(1,055)	77(710)	258(762)	

간 암

○ 간암의 원인

모든 악성 종양과 마찬가지로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알려져 있다. 환경적 요인에는 바이러스성 간염, 혈색소성 및 알코올성 간 질환 등과 같은 만성 간 질환

환, 곰팡이에서 유래한 아플라톡신 등을 포함한 화학 물질, 영양 상태 및 호르몬 등이 가능한 원인으로 제시된다. 특히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규명된 이래 바이러스성 간염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.

유전적 요인으로는 근래에 괄목할만 하게 발전되고 있는 분자 생물학적 연구에 힘입어 암 유전자 및 억제 암 유전자 등의 유전적 요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멀지 않은 장래에 그 기전이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.

◎ 간암의 증상

간암에서만 특별히 나타나는 증상은 없으나 일반적인 증상을 살펴보면 간경변의 증세와 같다. 대개 초기 증상으로는 몸이 노곤하고 소화가 잘되지 않으며, 헛배가 부르고 식욕이 없어지며 우 상복부에 불쾌감을 느끼는 등 막연한 증상이 많다.

가끔 우측 늑골의 아래로 단단한 돌덩이 같은 것이 만져지거나 통증과 때로는 간헐적으로 바늘에 찔리는 듯한 아픔이 간 부위에서 느껴지며 주로 밤중에 심해진다.

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, 전신 쇠약, 상복부와 견갑부 동통 및 체중 감소이다. 그러나 간암의 증상은 암이 진행되기 전까지 증상이 거의 없는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데 증상의 기간은 아주 짧아서 75%이상에서 병력 기간은 6주 미만이다. 약 80%의 예에서 체중 감소와 허약이 나타나며, 복통은 반수에서 나타난다.

통증은 둔하고 지속적이지만 과사된 결절의 파열이나 혈관의 침식으로 복강 내 출혈이 있을 때는 급작스런 통증을 유발하는데 약 14%의 예에서는 첫 증상으로 발현된다.

간은 대개의 경우 종대되어 있으나 동통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. 또한 황달, 복수, 비장비대를 포함한 많은 증후가 나타나나 종양보다는 내재되어 있는 만성 간 질환에 의한 경우가 많다.

◎ 간암의 초기 진단

간암은 증상을 느낄 정도면 치명적이나 조기 발견만 되면 완치가 가능하다.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최근 혈액검사, 초음파 촬영술이 발달해서 암 조직의 지름이 0.5cm만 되어도 찾아내 조치할 수 있다.

◎ 간암의 치료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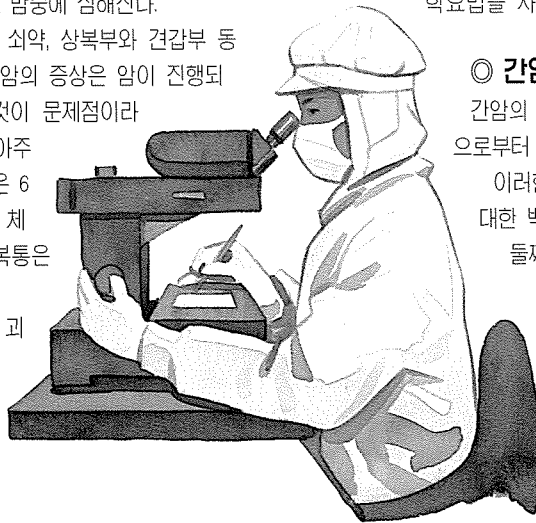
간암의 치료법을 보면 간 절제술, 간이식, 간 동맥 화학 색전술, 경피적 무수알코올 주입 요법 등이 있다.

이 중 간 동맥 화학 색전술이나 경피적 무수 알코올 주입요법은 수술이 불가능 할 경우 사용되는 보조적 치료법이며, 가장 유일한 근본적 치료는 수술적인 절제술이라고 1986년 미국 보건성 암 연구소에서 발표하였다.

간암의 수술적인 절제술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암종이 단발성이거나 국소적이어야 하고, 임파절이나 혈관 혹은 담관의 침윤이 없어야 하고, 원격 전이의 증거가 없어야 한다.

비록 종양이 해부학적으로 절제 범위 내에 있더라도 간 경변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 무리한 절제는 수술 후 간 부전을 야기시킬 수 있다.

화학요법으로는 100명 가운데 한 명이 완치된다는 통계도 있다. 그러나 간암 치료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정돈나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암 부위를 수술한 뒤 화학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.



◎ 간암의 예방법

간암의 예방법은 간암 발생의 여러 요인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것이다.

이러한 방법으로는 첫째, B형 간염에 대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며,

둘째, 무분별한 성 관계의 금지,

셋째, 수혈이나 마약 남용을 방지하여 C형 간염을 예방하고,

넷째, 가족 중 간염 환자가 있을 시 가족 사이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고,

다섯째, 술자리에서 잔을 돌린다거나 공동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음식과 음주 문화의 개선,

마지막으로 변질된 음식으로부터 아플라톡신 등을 섭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.

그리고 B형 간염 환자의 보균자는 간암의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은 간암의 고 위험군에 있기 때문에 매년 2-4회 정도 초음파 검사와 혈중 알파페토 단백질 등을 측정하여 간암의 발생 여부에 대한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.

식생활 예방법으로는 항염증에 적용하는 노루귀를 섭취하면 좋고 식사는 울무를 주식으로 한 현미, 검정콩 식사가 좋다. 살구씨에 함유된 아미구다린을 비타민 B17이라 하는데 이것이 항암 작용이 있으며 엽기름이나 컴프리에 들어 있는 알란토인 스쿠알렌 성분도 항암 효과가 있다. 